

환자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지역 최고 명문 병원으로 환원되다

유광사여성병원  
유광사 원장

1970년대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 애 넣던 것도 병원에 가면 호사였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전형적인 서민 거주지 화곡동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산부인과를 개설한 유광사 병원장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환자 형편에 맞게 진료를 했다. 그 결과 30년의 세월이 쌓이면서 유광사여성병원은 99개 병상에 내과를 개설하고 불임센터까지 운영되는 중견 지역 명문 병원이 됐다. 환자를 위한 헌신과 친절 그리고 봉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문윤희 기자> jazz@pharmstoday.com

## '있어서가 아니라 유광사이기 때문에'

지난 1979년 문을 연 유광사산부인과는 올해로 설립 32년을 맞았다. 애를 낳았던 이가 할머니가 되고, 신생아였던 아이가 애를 낳으러 오는 산모가 됐다. 대를 이어 찾는 지역 전통의 명문 병원이 된 배경엔 유광사 병원장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친절함이 자리하고 있다.

버스가 지나가면 흙먼지 날리던 시절. 어렵게 찾아온 산모가 병원비가 모자라 몰래 병원문을 나서려 하면 유광사 병원장은 환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프면 또 오세요. 병원비는 개의 치 말고...” 환자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주변 이웃들이 몸을 풀 시기가 되면 유광사 산부인과를 추천했다. 그렇게 연을 맺은 환자들이 소개의 소개를 통해 병원을 찾았다. 유광사 병원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그때 다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환자를 어떻게 병원비가 없다고 내모나. 차라리 약을 더 지어줘서 병원에 좀 더 늦게 오게 만드는 것이 도와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는 유복한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 어려울 것 없이 성장해 의사가 됐지만 소위 사람들이 말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 아픈 이들을 그냥 보지 못하는 그의 직업 덕택이기도 했지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했던가, 사람에 대한 정이 많고, 없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의 마음 씀씀이 때문이다.

그의 직업정신과 마음씀씀이로 인해 유광사산부인과는 개업을 한 이후로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병원이 됐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원의 시설과 직원의 수도 늘어갔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시설을 갖추면서 유광사여성병원으로 발전했다.

병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광사 병원장은 직원 교육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위험하고 배려가 필요한 환자는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들에게 편안함과 휴식이 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는 철칙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대기실전경



신생아실

봉사와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많은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곧 실천하는 봉사가 환자의 웃는 얼굴과 감사함을 담은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는 뒷말이 사라졌다.

“저희 병원의 가치는 환자 중심입니다. 환자에게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생각 없이 우리 병원에 근무할 수 없어요. 친절은 직원 개개인의 희생을 불러오지만 그것이 곧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실천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원장인 내가 잘해서 병원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 식구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해요.”

### 나누는 삶이 현장을 뛰게 만드는 근원

유광사 병원장의 나누는 삶은 병원 밖에서도 유효하다. 지난해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30억원이라는 통큰 기부를 했고, 의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수백만 원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강서구장학회 이사장을 겸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한다.

“병원을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이 이상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가족들과 상의해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또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당연히 이웃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병원이 성장한 것도 다 이웃들이 우리 병원을 찾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원에 나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봉사와 실천을 지속하려 한다고 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돌보고 진료를 통해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건강에 더 신경을 쓴다. 오래 병원 현장에 나올수록 더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만든다. 올해 칠순을 맞은 그는 하루 1시간 운동을 실천한다. 일과가 끝나고 별다른 선약이 없으면 헬스장을 찾아 30분간 근력 운동을 한다. 집에 도착해서도 자기 전 30분 정도 런닝머신 위에서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걷기를 한다. 소식도 그의 건강관리의 또 다른 요소다. 세끼를 모두 챙기지만 반 공기 이상을 먹지 않는다.

병원전경



진료를 할 때 몸과 머리가 무겁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내 몸이 아프면 되나  
요. 우선 내가 관리를 잘 해야 환자들도 잘 볼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건강이 허락한다면 80세  
까지는 진료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아직도 저를  
찾는 환자들이 있어 그분들께 보답하려면 계속  
병원에 있어야지요.”

### 80세 까지 뛰기 위한 또다른 노력

유광사 여성병원에서 지금까지 받은 아이만 대  
략 5~6만 명 정도다. 14명의 의사들이 상주하  
고 있지만 유독 유 병원장을 고집하는 환자들이  
있어 지금도 하루 평균 2~3명의 아이들을 받는  
다.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그는 수술실에 들어가  
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다른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1시간을 훌  
쩍 넘기는 제왕절개도 저는 30분 정도로 마무리  
해요. 산모와 아이에게 무리가 가지 않고 안전  
하고 신속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는 나만의 노  
하우가 있는 셈이죠. 오랜 시간 진료실에 있었  
던 경험 때문이겠지요.”

병원에 실습을 오는 의사들에게 유 병원장은 학  
교에서 배운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환자들을 많  
이 겪어 보라고 권유한다. 산부인과 의사의 실  
력이 평준화 된 시점에서 경험만큼 좋은 경력  
쌓기는 없기 때문이다.

유광사 병원장은 “산부인과에서 유능한 사람  
은 아이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면서 “신기술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아이를 많이 받은 경력에서 나오는 노련미만  
큼 좋은 의사 경력도 없다” 고 말했다.

이웃에 봉사하는 실천가로, 대를 이어 찾는 의  
사로 지역 명사가 된 유광사 병원장은 국민훈  
장 목련장(1994)과 국민훈장 동백장(2001) 등  
훈장 외에도 보건사회부 장관 표창(1981), 재무  
부장관 표창(1989), 보건복지부장관 표창(2011)  
을 통해 본인의 ‘나누는 삶’ 을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오늘도 ‘80세까지의 진료’ 를 위해 뛰다는 그  
는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사’ 라  
고 해도 과훈이 아닐 것이다. \_ MP저널